

‘이재명 유죄 판결’ 이후 정치권 거센 후폭풍

국힘, 연일李大표·민주당 때리기에 열 올려 최민희 “비명 움직임이면 당원과 함께 죽일 것” 조국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 4법’ 통과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 이후 여야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일 이 대표와 민주당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8일 민주당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에서 어찌던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범죄 혐의 중에서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 개발 관련한 비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인 사법 방해범죄”라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

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규탄 장외 집회를 벌이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려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 16일 서울 시내에서 개최한 장외집회에 대해 “사법부 성토대회이자 ‘이재명 구하기 결의대회’와 다름없다. 공공연히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내 친명과 비명간 감정을 건드리는 격한 표현도 등장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움직임이 활발해진다는 관측과 관련해 “제가 당원과 함께



법원 판단 문제점 지적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죽일 것”이라고 말해 표현이 과하다는 말이나 나오고 있다.

물론 민주당 지도부는 18일 해당 발언을 두고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도심

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추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숨죽이고 있던 민주당 내 분열 세력이 준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 국면이 돌파될지 아니면 민주당이 사분오열될 지가 결정될 것”이라

며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 의원 발언이 과격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지도부에서 논의된 바가 있는냐는 질문이 나오자 “강경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온건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 각자 소신대로 발언할 수 있다”며 “(최 의원의 발언은)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답변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이번 국회 회기에 혁신당이 제출한 ‘검찰개혁 4법’을 통과 시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를 감수하면서라도 본회의에 올리면서, 수사과 기소분리 법안은 예 외리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 “검찰은 대선 패배 정치인에 대해선 발언 하나하나를 정밀 분석해 먼저 털듯 수사하고 기소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아냈다”며 “야당, 특히 민주당에 묻는다. 이런 검찰을 그냥 놔두면 되겠냐”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혁신당이 낸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진수 기자

민주, ‘李 사법리스크’ 방어 총력전

검찰 ‘무리한 기소’·법원 ‘가혹한 판결’ 부각 尹대통령 부부 의혹 언급…23일 장외집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이어 법원이 ‘가혹한 판결’을 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떨어진 대선 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오관의 총격보다 더 큰 정권 교체의 민의가 단단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도리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더욱 키울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다음 날, 부친 호텔 화재 사고 추모 기간 등 날짜를 가리지 않고 골프 연습을 했다”며 “민생, 국정현안을 내팽개치고 골프 삼매경에 빠진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

면 특별검사를 임명해 훼손되는 법 질서와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며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이 나라의 법 질서 회복을 바란다”며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요구권) 행사가 예상되지만 이나라는 대통령 흔자의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므로 주권자의 뜻에 따라 특검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에도 장외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와 함께 집회를 개최해 김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용을 압박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여야의정協, 2025학년 의대 증원 입장차

의료계 “수시 미충원, 정시 이월 말자”…정부 “법적 문제 있어”

여야의정협체는 지난 17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이견만 확인한 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 2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 주장을 들었고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말했다”며 “의정 간 이행선에 여당 차원에서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과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등을 통해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의대 지원 학생의 학습 능력 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도 요구했다.

대학이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의대 지원 학생을 선발하지 않을 자율성을 달라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다시 변경하려면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미충원 인원 이월은 모집요강에 이미 안내가 됐고, 예비 합격자 규모를 통한 인위적 정원 조정은 법적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학습 능력이 우수한 대학의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것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애초 수시와 정시 모두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만 입학하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학생이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의료계도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이 어려운 것을 인정하고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사지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조인철 “김여사 명품가방, 파우치로 깎아 내려”

여야는 18일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에 대해

‘파우치’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명품 가방과 같은 종류의

가방을 들어 보이며 “이것을 거의 동전 지갑처럼 조그만 파우치 정도로 깎아내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파우치’가 해당 상품의 정식 명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막을 쳤다. /김진수 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제품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파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자가격 ₩ 1,180,000

헤드	단봉나우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강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리트 완전해결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봉나우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 타구감

소비자가격 ₩ 800,000

헤드	단봉나우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강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